



지표를 통해 살펴 본 일·가정 양립 현황과 미래 과제

안수지 부연구위원(삶의질그룹)

일·가정 사이에서의 선택이나, 양립이나

● 가치관의 변화로 ‘일·가정 양립’은 가족을 이루는 데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음

- 근로자의 일·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,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전통적인 성 규범은 일·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옴
-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는 확대되고 있으나, 일자리 특성에 따라 이를 체감하는 계층은 한정적이며, 가치관의 변화와 맞물려 일과 가정 사이에서 ‘선택’을 고려하는 상황에 맞닥뜨림
- 오늘날의 맞벌이 부부는 저녁이 있는 생활을 추구하며 개인의 행복을 중시함에 따라, 가족을 이루는 데 일·가정 양립의 가능성은 예전보다 더욱 중요해진 조건임

● 육아휴직제도 활용, 가구 내 가사분담 등 일·가정 양립 관련 지표를 살펴봄으로써 일·가정 양립 현황 진단과 함께 미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

일·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사회적 인식 및 노동시장의 구조적 한계

●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재정사업인 ‘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’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, 배우자 출산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급여 등이 있음

- 2022년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13만 1,087명,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대상은 7만 3,099명임

표 1 일·가정양립을 위한 재정사업(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) 지원 현황 (2022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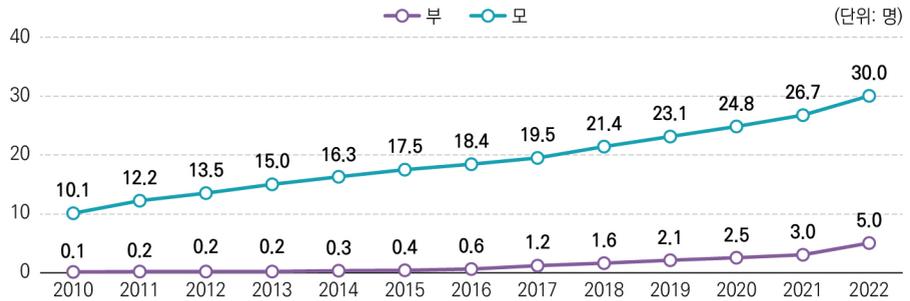
구 분	출산전후휴가급여	배우자출산후휴가급여	육아휴직급여	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
지원 인원(명)	73,099	16,168	131,087	19,466
집행예산(억원)	3,019	61	16,614	1,06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(2023),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저출산 정책 및 재정사업 분석

● 가장 대표적인 일·가정 양립제도인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은 꾸준히 증가함

-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수는 2010년 기준 여성 10.1명, 남성 0.1명에서 2022년에는 여성 30.0명, 남성 5.0명으로 꾸준히 증가
- 특히, 2022년에는 여성이 전년 대비 출생아 100명당 3.3명(12.4%), 남성이 2.0명(66.7%) 증가하였는데, 이는 새로이 시행된 ‘3+3 부모육아휴직제’에서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상한액을 기존의 150만원에서 200/250/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

그림 1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 (2010-202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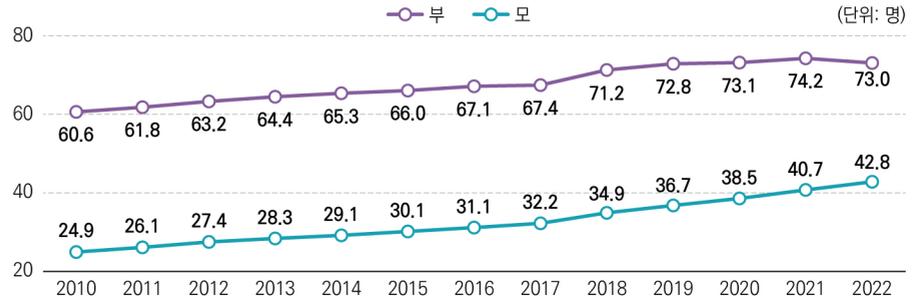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육아휴직통계

● **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의 증가는 제도의 포괄성, 즉 제도 활용이 가능한 대상자 증가와, 실제 제도 활용도 증가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제고된 결과**

-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
-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가능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2010년 남성 60.6명에서 2022년 73.0명으로 증가하였고, 여성은 같은 기간 동안 24.9명에서 42.8명으로 크게 증가
- 이는 여성이 주로 고용된 일자리에서 고용보험제도의 포괄성이 확대되었음을 시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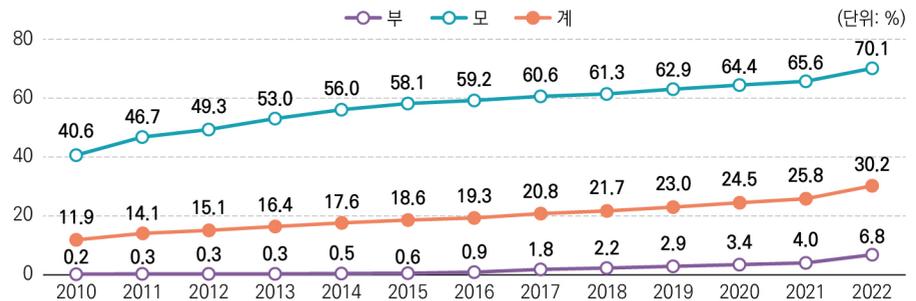
그림 2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 (2010-2022)



자료: 통계청, 육아휴직통계

-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중에서 출산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여성의 경우 2010년 40.6%에서 2022년 70.1%로 크게 증가하였고, 남성의 경우 2010년에는 0.2%로 거의 활용하지 못하던 수준에서 2022년에는 6.8%로 유의미한 수치로 증가함
- 이는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직장 내 ‘육아휴직 사용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지만, 여전히 남성 이용률은 낮은 수준임

그림 3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중 육아휴직 사용률 (2010-2022)



자료: 통계청, 육아휴직통계

● **그러나,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 및 제도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 존재**

-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볼 때,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비율이 여전히 낮아, 일자리 질에 따라 고용보험제도 사각지대의 격차가 큼을 시사

표 2 사업체 규모별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모(母) 중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 (2022년)

구분	4명 이하 사업체	5-49명 사업체	50-299명 사업체	300명 이상 사업체
100명당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(母)	15.6	31.2	19.8	74.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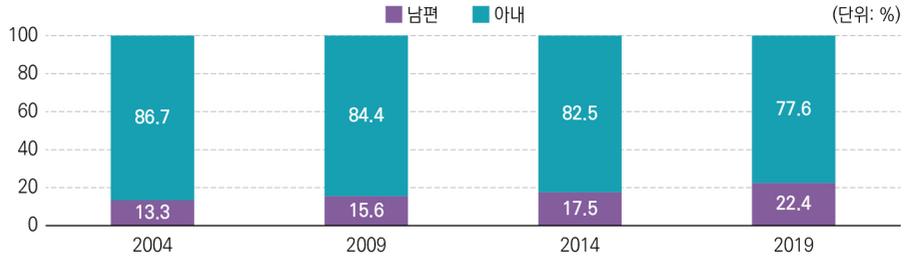
주: 사업체 규모별 100명당 육아휴직 가능 대상자 수 = 사업체 규모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수 ÷ 사업체 규모별 육아휴직 사용자수
 자료: 통계청, 육아휴직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

- 현장(특히, 중소기업체)에서는 육아휴직 대체자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, 이로 인해 주변 동료들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문제 등으로 여전히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다수

가구 내 가사노동 분담 지표를 통해 살펴 본 성역할 규범

- 가구 내 성별 가사노동 분담 불균형은 완화되는 추세이나, 여전히 여성이 가사노동의 중심
- 맞벌이 가구의 총 가사노동(가정관리 및 가족 보살피기) 시간(일 평균 240분 내외) 중 남편의 분담 비중은 2004년 13.3%에서 2019년 22.4%로 증가하였으나, 성 규범의 변화 속도는 더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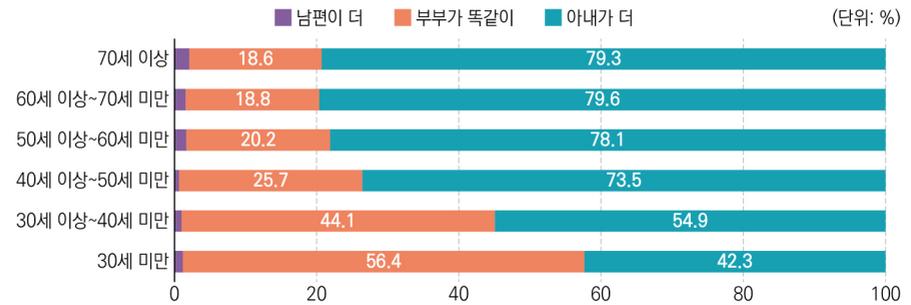
그림 4 맞벌이 가구의 남녀 가사노동 분담 비중 변화 (2004-2019)



자료: 통계청, 생활시간조사

- 40대 이상에서는 부부(모든 부부)가 똑같이 가사분담하는 비율이 20%대로 낮으나, 30대는 44.1%, 30세 미만은 56.4%로 나타나, 젊은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은 중·고령 세대에 비해서는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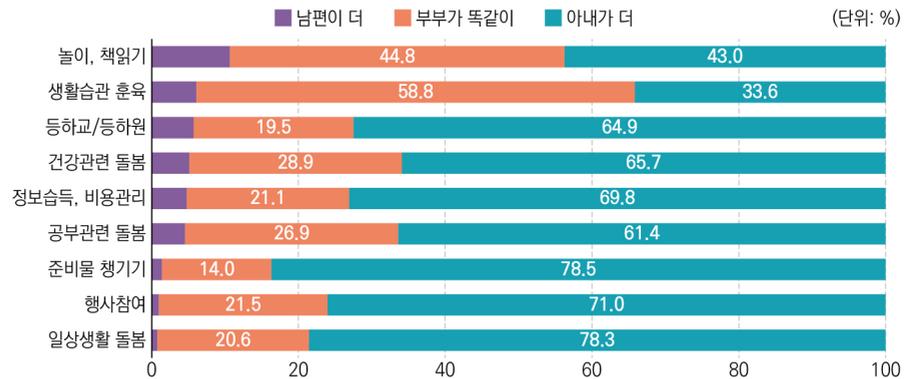
그림 5 부부의 가사노동(시장보기, 식사준비, 청소 등) 분담 (2023년 기준)



자료: 여성가족부,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작성

- 12세 미만 자녀돌봄 영역 중 놀이 및 책임기, 생활습관 훈육 등에서는 부부가 똑같이 분담하는 비율이 50% 내외이나, 그 외 자녀돌봄은 대부분 아내가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자녀 생애 초기, 남편의 돌봄 참여가 아내에 비해 저조(배우자출산휴가, 배우자육아휴직 등 활용 저조)하였던 것이 장기화 된 영향도 있을 것

그림 6 부부의 12세 미만 자녀 돌봄 영역별 분담 (2023년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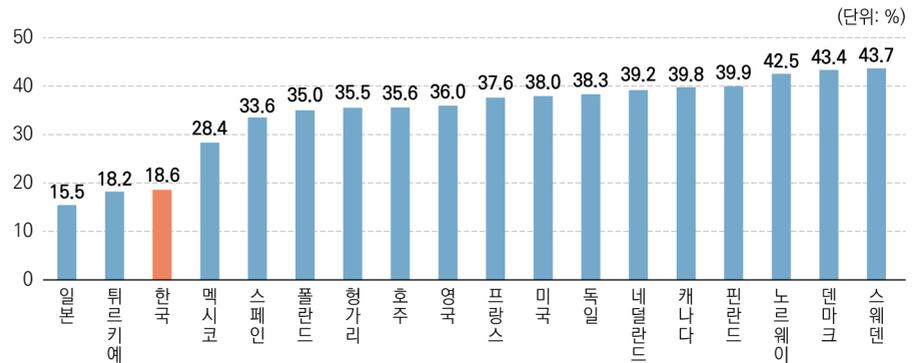


자료: 여성가족부, 2023년 가족실태조사를 이용하여 재작성

● 해외 주요국 중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는 남성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높게 나타남

- 해외 주요국의 15-64세 남녀의 일 평균 총 가사노동시간 중 남성의 투입 비중을 계산한 결과 한국은 18.6%로 일본(15.5%)과 함께 최하위권에 속하는데, 대체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남성 가사노동 참여 비중이 40% 전후로 높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음

그림 7 해외 주요국의 남성 가사노동 분담 비중 (2019년)



자료: OECD, OECD Gender Data Portal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

일·가정 양립 달성을 위한 미래 과제

● 정책 영역의 과제: 제도적 격차 완화 및 지속가능성 담보

- 꾸준한 정책대상 확대에도 불구하고, 사업체 규모별, 성별에 따라 일·가정 양립제도 활용의 격차는 여전히 크며, 고용보험 미가입자(일부 비정규직,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대다수)의 경우 제도 활용이 불가능함
- 일·가정양립 제도의 확대와 함께, 제도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, 제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
 - 스웨덴, 아이슬란드, 노르웨이 등은 남녀 육아휴직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음. 그러나 여기에서 육아휴직 시 줄어드는 소득에 대한 보전을 얼마나 할 것인가는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임
- 일하는 모든 부모의 돌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확대 및 활용방안,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필요
 - 육아휴직 등의 급여가 지급되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의 재정수지는 악화, 제도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

● 개인 및 사회 영역의 과제: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가구 구성원 및 사회 인식 전환

- 아내가 외벌이를 하는 가구에서조차 가사노동의 절반 이상(56.7%, 통계청 생활시간조사(2019))을 여성이 분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여전히 성별 분업적 가치관이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
- 양성 평등적 가치관으로의 전 세계적인 변화와 함께, 한국은 맞벌이 가구 증가, 여성의 커리어에 대한 가치 변화, 결혼 및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음
- 변화된 환경에 따라, 가사노동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며, 가구에서는 부부가 적절한 가사노동 분담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할 필요
-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및 사회환경 조성, 양성 평등적인 인식은 가족 형성과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
 - 일과 가정의 양립이 사회적으로나 가족 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, 개인은 선택은 가장 방어적인 형태인 출산 파업(birth strike)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¹⁾

1) 박수미(2005). 가족내 성평등과 저출산. 보건복지포럼, 2005(4), 36-44.